

현장과 시각

U대회 유치 실패의 교훈



정후식

사회1부 부장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졌다. 결선 투표도 가지 못하고 1차에서 승부가 갈랐다. 어쩌면 역부족이었는데도 모른다. 무엇보다 국가적 지원에서 차이가 났다. 준비 기간도 짧았다. 관세 분석과 전략적 측면의 오류도 눈에 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은 1일 새벽(한국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러시아 카잔의 손을 들어줬다. 그 순간 U대회 유치를 '올인(다걸기)해온 광주시와 유치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총회장 밖에서 응원하던 대학생들은 눈물을 흘렸다. 광주시청 광장에서 철야응원에 나선 공무원과 시민들도 한참 동안 말을 잊었다.

광주시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유럽 물표만 아니었다면' '푸틴만 등장하지 않았다더라' 등의 아쉬움도 클 것이다.

하지만 이제 냉정히 과인을 따져봐야 할 때다. 우선 준비 기간이 짧았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카잔은 무려 6년동안 표발을 다져 상당한 고정표를 확보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동경표도 예상했다. 반면 국제대회 유치에 처음 도전한 광주는 5개월만에 이를 뒤집으려 했다.

물론 '작은 선거가 어렵다'고 이번 U대회 유치전은 그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투표권을 쥔 집행위원들이 27명에 불과한데 대부분 대학교수들이어서 표심을 쉬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에도 온도차가 컸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는 오일달러와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푸틴은 총회에 임박해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FISU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광주의 경우 새 정부와 교감에 부족했던데다 그나마 이뤄진 국가 지원도 지역에서 불만을 내야 마지못해 나서는 양상이었다.

현지 실사에서 카잔 보다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은 정보 부족 아니면 전략적 오류 때문일 것이다. 광주시는 스포츠 인프라에서 경쟁 도시보다 우월함을 자랑했다. 하지만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서도 카잔에 비해 열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U대회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 대회 유치전이 관(官) 주도로 흐르면서 아래로부터의 열광을 모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사 및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은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여줬다. 강한 응집력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쏟은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번 U대회 유치 과정에서 노출된 광주의 강점과 약점을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를 끌어오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who@kwangju.co.kr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와 과제

'실용노선' 난맥 국정운영 '낙제'

출범 100일 만에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 미숙에 따른 급격한 민심이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 정권 백일상에는 '희망'과 '미래'가 화두로 올랐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강부자 내각, 경제 불안, '최고기 과동'을 겪으면서 민심은 악화됐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취임 초기의 막강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민심 이반 지지도 반토막

총체적 국정 쇄신책 필요

이를 반영하듯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이 '긍정'을 압도한다. 48.7%의 득표율과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100일만에 20%대로 떨어져 반 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을 비롯한 새 정부의 역점과제 추진에도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최고기 정국에 발목이 잡히면서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무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국내의 여론 악화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비준조차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경제 또한 고유가와 고물가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체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우 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서

민 지지층이 급속히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고기 정국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고, 야당은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반발로 내각총사퇴 요구와 함께 법적대응을 하고 나섰다.

설상가상으로 새 정부 '실용외교'도 삐걱거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권의 위기는 '소통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개 사과한 것도 이런 '실책'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적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고, 국정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나를 따르라'가 아닌 '같이 가자'는 국정운영과, 그에 걸맞은 국정시스템 정비 및 당정청 조율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또 내각에 대해서 부분적인 인적교체를 단행하고, 청와대는 정부·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책 측면에서는 급등하는 경우값 대책 등 서민들의 경제난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국정쇄신책이 현 위기의 악화나 진정이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토해양부 '대운하' 정면 돌파

방어일변도 탈피 홍보 나서

국토해양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비판을 정면돌파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의 공세에 방어일변도였던 것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사업 검토를 위해 만든 임시조직인 대운하사업준비단의 정

내상 단장은 1일 한국방송(KBS) 일요인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운하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단장은 30억원을 들여 물길잇기 및 5대강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운하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표명했다. /연합뉴스



쓰촨성 대지진으로 형성된 탕자산 언색호에 물길을 트기 위한 작업이 지난 달 31일 완료됐다.

/연합뉴스

中 탕자산 언색호 물길 트기 마무리

자연유출 방식 방류... 댐양시 언색호 20만명 대피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형성된 최대규모 자연호수인 탕자산 언색호가 자연유출 방식으로 물을 방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방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의 1일 보도에 따르면 탕자산 언색호 물길 만들기 공정이 전날 밤 12시를 기해 마무리됐다. 1천21명의 작업반도 이날 낮 12시를 기해 완전 철수한다.

탕자산 언색호 지휘부의 부주임인 위예시는 폭파공법을 도입하지 않고 자연유출 방식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색호 양쪽의 산체에서 토사가 아직도 밀려 내려오고 있

고, 토사제방의 지질구조도 복잡해 제방을 통과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에 부주임은 말했다.

지휘부는 이에 따라 탕자산 언색호의 제방을 가능한 낮춰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물이 넘쳐 물길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예시 부주임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매일 2m 정도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3일 뒤면 자연유출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탕자산 언색호를 하루로 연결하는 물길은 폭이 약 50m, 하부 폭은 8m에 이르고 평균 깊이는 12m, 최대 깊이는

13m다. 지휘부는 무선관측시스템을 구축, 상류와 하류의 3개 지점에 설치한 촬영기에서 수집한 내용이 위성을 통해 지휘부에 전달되도록 했다.

한편 탕자산 하류에 있는 댐양시에서는 언색호 3분의 1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공성(空城) 전략에 들어가 이미 20만명이 부근 고지대로 대피한 데 이어 완전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댐양시는 언색호가 2분의 1 이상 붕괴하면 완전붕괴와 거의 차이가 없어 1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전붕괴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北 플루토늄 37kg 생산

美 추정치보다 적어 과대평가 논란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플루토늄 관련 핵 자료에서 37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제출한 1만8천쪽 분량의 핵 자료에 37kg(81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혔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30kg 보다는 많은 것이지만 미 정보기관들

이 전에 추정했던 40~50kg 보다는 적은 것이다. 북한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통해 6~10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돼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7박스 분량의 북한 핵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북한의 핵 자료는 무기 생산을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의 주요 3단계(1990, 2003, 2005년)에 관한 정보도 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싱가포르 한·일국방장관 회담

이상의 국방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군사협력은 물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 중인 두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상그리다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일관계 발전에 상응해 국방분야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간 공동수색구조훈련 실시 ▲안보회의 연내 재개 등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러분은 예비 경찰 공무원으로 초대합니다."
7월 1일 경찰직 이공시험반 첫반도 개강

7월! 전국 최강 경찰강사진을
광주 동부경찰학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찰장학생 선발고사 6월23일(토) 오후3시~
수강료 전액면제 등 다양한 장학혜택 제공
(상세한 내용은 동부경찰학원 홈페이지 참조)

경찰학원의 리더!!
동부경찰학원 www.dongbupolice.co.kr
동부경찰서 뒤편 062-234-1112

"2008년 서울시 지방직종 1,789명 선발원격대비"
서울시문제풀이반
6월2일(월)개강 6월2일(월)~7월12일(토)

"2008년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 100% 역량"
아직특별반 6월2일(월)개강
직장인반·재학생반·특채대비반
09년-공무원 서울시 임용제안 배지

공무원학원의 리더!!
동부고시학원 www.dongbugosi.co.kr
시내 예술의거리 062-233-0509